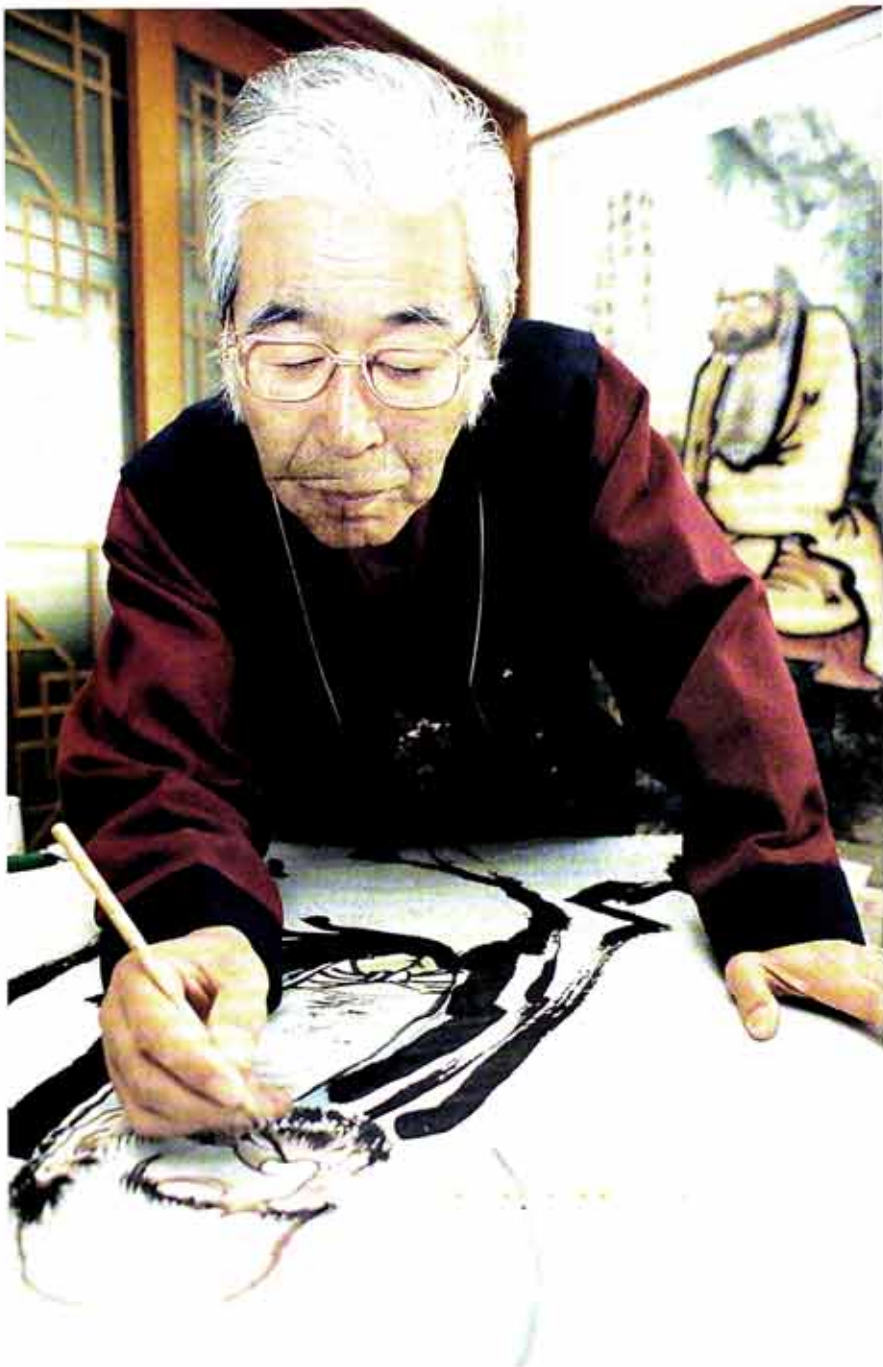


“무욕의 마음으로 붓 휘둘러야 그림에 세찬기운 넘쳐나죠”



◇몸과 마음을 붓끝에 모을 때 잡념이 사라지고 일념이 남는다는 이인호 원장이 '달마도'를 그리고 있다.

이인호

불화가·익산문화원장



프로급 10종 80기의 예인

“그림, 음악, 무용 등 모든 예술은 공통점이 있어요. 자기를 철저히 버리고 욕심을 없애야 일정한 경지에 오를 수 있지요. 잘 하려고 하면 오히려 그르치게 됩니다. 무욕의 마음으로 붓을 휘둘러야 세찬 기운이 넘쳐납니다.”

불화가 이인호 거사 67, 익산문화원장가 고회를 바라보는 적지 않은 나이임에도 엄청난 필력을 과시할 수 있는 비결이다. 47년간 불화와 단청을 그려오면서 불심을 자연스럽게 예술로 승화시킨 원로 불모 이인호 원장은 10종 80기의 예인으로 알려져 있다. 주종목인 단청과 불화는 물론 불상 조각, 도자기, 승무, 법고, 종이 공예, 궁중요리 등 흔히 전통 예술이라고 부르는 것은 손에 안잡아 본 일이 없을 정도다. 그렇다고 그냥 호기심에서 취미 삼아 가볍게 한 것은 결코 아니다. 모두 다 발표회를 가질 정도의 프로급 수준이다.

하나도 제대로 하기 어려운 게 예술의 속성인데 이 원장이 10가지 이상의 장르를 수준급으로 넘나들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일까. 바로 동진 출가였다. 이 원장은 태어나면 낱 자신의 단명을 예고한 금산사 소진산 스님의 권유로 7세때 불가에 귀의했다. 이후 20여년간 금산사 금어리고 경지에 이른 단청장였던 소진산 스님의 사자 노릇을 하며 불화와 단청, 한지 공예, 사찰음식 등 불교문화 전반에 관한 공력을 키웠다.

“사람은 불교예술이 모두 공존하는 종합무대입니다. 당시에는 잘 실행이 어려워 모든 일을 외부의 도움없이 스님들 스스로 자급자족 하던 시절

이지요. 20년 승려 생활을 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전반적인 불교문화에 대해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27세에 환속한 이 원장은 공장 서울로 올라와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이던 경산 스님에게 ‘인도리(講)’란 범명을 받았다. 이때부터 불모로서 새로운 삶이 펼쳐진다. 백 가지 형상의 달마, 기하학을 도입한 백 가지의 단청본 - 등. 자신만의 예술세계를 차곡차곡 가꿔나갔다. 근엄한 달마의 모습이 불자들에게 하여 거부감을 일으킬까 봐 고운 색채를 입히기도 했다. 특히 이 원장의 단청은 옛 단청을 응용한 창의력이 돋보이며, 대형 탱화와 벽화의 권율 등 선이 굵으면서도 섬세한 우아미를 지녔다. 금단청 솜씨는 이때부터 이미 국내 일인자로 평가받을 정도다.

47년 동안 불화·단청 그려

이 원장은 “어떻게 하면 불화가 살아 움직이는 듯 보일 수 있을까 오랫동안 고민해 왔다”며 “과우상하 어디서든 벽화를 보는 사람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 대할 수 있도록 시선이 따라 오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 목표였다고 한다. 이런 그의 화두는 71년 수원 용주사 단청과 벽화를 그리면서 실마리가 풀렸다. 대웅전에 걸린 단청 김홍도의 후불탱화를 아침저녁으로 찾아가 입체적인 표현을 관찰했고, 비로소 그가 원하는 기교를 얻어냈다. “기교와 기술은 오랜 관력이 쌓이면 저절로 생겨납니다. 하지만 수많은 부처님을 그림 속에 탄생시키는 불모의 경지는 일념이 없으면 절대로 오를 수 없지요. 항상 부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몸과 마음을 붓끝에 모을 때 비로소 일체의 잡념이 걷히고 일념이 남습니다.”

그가 남긴 작품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59년 남산 팔각정을 시작으로 공주 마곡사, 아산 현종사, 수원 용주사, 서울 회계사, 밀양 표충사, 고성 건봉사 등 수십여 사찰에 그의 손길이 남아 있다. 89년 고향인 익산시 금마면으로 낙향해서는 7공수여단의 군법당 단청도 해 주었다.

불모의 길과 함께 이 원장이 평생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인간문화재 박초월 선생에게 사사받은 승무와 법고였다. “출한 동작 한 움직임은 한 순간이어서 그냥 허공에 사라집니다. 짚었을 때는 아름답고 화려한 춤을 보여 줄 수 없을까 하는 생각에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무대에서 서면 그냥 허공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걸 걸 것입니다. 최선을 다한 완벽한 춤은 보는 관객들의 마음에 영원히 각인되고 그 감동은 평생 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육체를 움직이지만 사실은 영혼으로 추는 것이 바로 승무입니다.”

개인전 40회, 제자 80명 배출

이런 그는 아직 현역이다. 지난 5일 익산시민회관에서 열린 인간문화재 명인명칭 초청 ‘송년 국악한마당’에서도 법고를 직접 두드려다 과로로 쓰러지기도 했지만 그 열정만큼은 젊은이 못지 않다.

77년 한국불교미술대전 대상을 비롯해 84년 익산군민상 수상, 96년 서울신문사 문화인상, 올 11월 문화관광부 장관상 수상 등 두렵 남짓한 방에 가득한 상패와 트로피를 보며, 화려한 인생을 산 그에게도 후회가 있는지 묻고 싶었다.

“국내외 40여차례의 개인전과 80여명의 제자를 배출하는 등 참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 곁에서 성불을 이루겠다는 출가의 약속을 중도에 포기한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그나마 불모의 길을 평생 걸을 수 있었던 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원장은 내년 8월 직접 설립한 뒤 12년간 지켜왔던 익산문화원장의 자리를 후배에게 내 줄 예정이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15년 보급지리인 예도원에서 달마도 등 불교미술을 소재로 한 기념품 개발 제작으로 50여년간의 불모 인생을 회향하겠다고 한다.

글=김주일 기자 jkim1@buddhopia.com

사진=임민수 기자 ymns001@buddhopia.com



◇이인호 원장이 97년 전시회 '예도전'에 선보인 '후불탱화'



경주수와 38명 현대불교신문화 역을 신국판/409쪽/값12,000원

부처님, 어떤 복을 지을까요

- 현대불교 신행수기 당선작 모음

신행을 통해 난관을 극복한 공로 당선자들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기 자신의 마음을 믿고 의지한 불자들이입니다. 누구라도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밤이나 낮이나 지극정성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법을 공부해야 하며 이를 일상생활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정대 스님(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우리가 비록 오학악세(五濁惡世)에 살고 있어 비론 마음, 비론 법으로 살아가기 힘들다고는 하지만 불법에 귀의한 불자라면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업장(業障)이 무겁다 하더라도 물러나서는 안됩니다. 그럴수록 깊은 신심과 한결같은 정진으로 부처님께 귀의하는 마음을 내야 합니다.

운역 스님(천태종 총무원장)

수상작들은 단순히 부처님의 기피로 역경을 극복했다는 기록적인 내용보다는 이웃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회향하는 '행복한 신행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행불교, 생활불교로 정착되고 있는 반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많은 불자들이 불법과 좋은 인연 맺기를 기원합니다.

홍파 스님(관음종 총무원장)

역경을 그저 한탄하고 괴로워 하는 것이 아니라 발심의 계기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위를 수록 그내용이 아름답고 감동적입니다. 이 책을 읽는 모든 불자들도 그렇게 철저한 신앙심을 갖고, 평상심에서 보람을 찾아 매일매일 새롭게 발심하기를 바랍니다.

남정 스님(총화종 총무원장)

다양한 인간 삶의 고통과 번뇌를 오르지 불심 하나로 극복한 난 불자들의 이야기는 그동안 현대불교신문의 지면을 통해 소개되어 많은 독자들에게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또다른 지혜를 우리에게 선사했습니다.

서문리(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